

“목포시 수산업 출연기관 통합해야”

수산물유통센터·수산식품지원센터·수출센터 등 기능 유사 예산 절약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2천만 관광시대 준비를

목포시가 출연한 수산물유통센터 등 수산업 관련 3개 기관에 대한 통·폐합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목포시의료원을 포함해 총 9개 기관에 출연하고 있으며, 이중 수산 관련 출연기관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등 3개 기관이다.

목포수산물유통센터는 활어회 플라자와 견어물 젓갈센터 등에 관한 운영·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산식품산업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수산식품 입주기업의 제품생산과 전시·판매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와 축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목포시가 출연한 을 예산만도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8억원,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가 2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3개 기관의 사업이 중복과 함께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어 출연기간 간의 효율적 기능과 분담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여 기관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출연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관리체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담당 부서로 분산되고 있어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통

·폐합이 필요한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과 함께 발전 방안 등에 학술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대양산단(주)을 비롯해 총 10개의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2000만 관광객 수용체와 민선 8기의 정책 수요에 대응할 신규 조직의 설치 여부 및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진단을 통해 조직별 혁신과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직공약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목포·신안군지부 관계자도 “열악한 목포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기능이 많아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이제라도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 인구10만 조기 달성 토론회

무안군이 인구 10만 조기 달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무안군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 요인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1일 매주 개최해오던 간부회의를 대신해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인구 10만 조기 달성을 위한 현재 무안군 인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 보고와 토론회에 이어 김산군수의 총평 등으로 진행됐다.

각 부서에서 발굴된 인구정책 과제를 살펴보면 ▲미래성장 ‘내 고장, 내 직장’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외 2건 ▲기획실 ‘초보 아빠 육아교실 운

영’의 4건 ▲신도시지원단 ‘역세권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 외 2건 등 26개 부서가 신규 사업, 업무 관련 추진사업, 아이디어 45건을 발굴해 실질적인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보고했다.

이에 군은 이번 인구정책 과제발굴 토론회를 통해 보고된 안건들을 검토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도농복합도시인 무안 인구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사망률이 높고 전출이 많아 지속적으로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구늘리기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당장 눈에 띄는 실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 섬 역사·풍습 한눈에...민속박물관 추진

어로 풍습 생태계 담은 유물 1만점

1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다채로운 생활 풍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군의 다양한 생태계와 선조들의 어로 문화는 물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까지 한곳에 모아 섬의 역사와 선조들의 삶을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섬별로 생활 풍습이 다양해 어로 형태나 어구도 다르다. 군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과거 생활 유물들을 수집해 이러한 다양성을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 수집한 어업과 농업 생활 도구, 사진물, 기증 자료와 유물만도 1만여 점에 이른다.

또 서울시 22배에 달한 면적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1004개의 섬이 생물들의 서식지로 최적지임이 관계 학자들의 연구로 확인됐다. 국내에 기록된 조류 550여 종 중 400종 이상이 신안군을 통과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갯벌을 이용하는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번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수집된 섬생활사 자료. <신안군 제공>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수집한 유물과 자료를 한데 모으고 연구성과를 전시할 공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유물만도 1만여 점이 며 일반 개인들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도 3000점이 넘는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섬 지역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주요 도서에 대한 생태조사와 생물종 발굴조사 등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생물과 인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과거 생활도구의 유물을 수집 보관해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과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가루쌀 교육·컨설팅사업’ 전국 최다 선정

생산단지 5곳에 3000만원씩 지원...현장기술지원단 배치도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3년 가루쌀(분질미)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사업 공모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질미는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뿜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해 수요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또 6월 말 늦이앙이 가능해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이모작에 유리한 품종으로 정부는 쌀 과잉생산에 대응해 2026년까지 분질미 생산 단지를 200개소까지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해남군에서는 84농가 140여ha 면적의 해화영농조합법인 등 관내 5개소가 선정되

면서 각 3000만원의 경영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가루쌀 생산단지가 안정적인 공동영농을 통해 재배면적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단지별로 현장기술지원단을 배치해 영농단계마다 밭집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시설·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산단지에 선정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위해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분질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다문화 엄마학교’ 활발

초등교육 6개월 과정...가정 학습 지도 훈련 등 다채

진도군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진도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총 6개월 과정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7개 과목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의 온·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평가 시험과 함께 가정 학습 지도 훈련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초등학교 졸업 검정

고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자녀학습을 지도하고 학교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엄마 역할’을 하는 다문화 엄마’를 양성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진도군가족센터와 한마음교육봉사단, 진도군 등이 협업으로 운영하는 진도 다문화 엄마학교는 지난달 중순 다문화 여성 8명이 입학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목포해수청, 선원보험 가입 전수조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관할 사업장(상선, 어선)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선원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선원법’ 적용 대상 상선과 20t 이상 선박소유자는 파산 등의 경우를 대비해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재해보

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병, 요양보상 등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해운선사, 어선 선주 등 관내 4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목포해수청은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기금’ 가입현황을 전수조사해 미가입 사업장(선주)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목포=박영일 기자 kyl@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